"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정부에 적극 지원 촉구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가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기업 참여를 통한 새만금 개발 가속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2일 부안군의회에서 열린 제220차 월례회의에서 세계잼버리 유치와 운영에 절실히 필요한 새만금국제공항과 서해안 철도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2023 세계잼버리 유치기반시설 확충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협의회는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의 경우, 잼버리 예정지의 지리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바웬사 전 대통령이 국가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는 '새만금사업 공기업 참여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협의회는 "새만금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지 25년이 되었지만, 외곽 방조제만 겨우 완공되고 내부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각종 선거 때마다 '말로만 개발하는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 전북도민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개탄했다.

이어 협의회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열쇠는 민자 유치이나 투자자가 부지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까지 해야 하는 원형지 공급방식 때문에 민자 유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기반시설 조성과 공기업의 참여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반대 결의안'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과 한빛원전의 수명연장 및 핵연료 단기 저장시설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사항은 지역주민과 합의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지 회장은 "세계잼버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만금사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공기업 참여를 통해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개발할 것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영재 기자

해경특공대 테러범 진압작전 22일 군산앞바다에서 펼쳐진 '해상테러 대응 항만방호 훈련'에서 국제여객선 조타실을 장악한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해경 특공대가 작전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 도서관을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시, 마을공동체 요충지로 도서관 확장 시동

전주시가 도시 전역에 분포된 도서관을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마을공동체의 요충지로 혁신해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시립도서관과 공립도서관을 비롯한 전주지역 모든 도서관을 마을관련 토론과 강의, 취미활동 등 마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점진적으로 혁신해 마을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전주에는 최근 개관한 효자도서관을 비롯한 11개 시립도서관과 29개 공립 작은도서관, 76개 사립 작은도서관 등 총 116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처럼 전국 여느 도시들보다 잘 갖춰진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해 전주의 모든 도서관을 마을주민들이 연극 등 문화 활동 및 취미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자, 마을관련 토론과 강의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가까운 도서관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을 활발히 펼쳐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서관을 주민생활과 보다 밀접한 마을의 요충지로 운영하는 국내·외 우수사례를 모아 향후 전주시 도서관 운영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음주운전 차량 트럭 추돌 사고

22일 오전 5시7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교차로에서 A(25)씨가 몰던 K5 차량이 B(44)씨의 5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승용차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재 기자

상습 가출 후 보호관찰관 소환요구 불응 10대 구인

법원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외박과 상습 가출을 일삼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10대 보호관찰대상자가 결국 구인됐다.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22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상습 외박과 가출을 일삼는 등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A군(14세. 전주. 특수절도 전력)를 구인했다고 밝혔다.

심야시간대 오토바이 절취 후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3월1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법원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외박과 가출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중 같은 반 여학생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등 문제행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준법지원센터는 A군에 대한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이 떨어지면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문화콘텐츠로 지역산업 경쟁력 높인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 ACE Fair' 홍보 부스 운영

전주시가 VR(가상현실)과 미디어파사드,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 기업의 성장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2일부터 2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6 광주 ACE Fair'에 지역 문화콘텐츠기업의 제품홍보를 위한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는 전주시 기업은 애니매이션 '수빈스토리'의 제작사인 올빼미하우스, VR콘텐츠 제작과 HD 방송영상시스템 구축 전문기업인 ㈜이모션, 미디어파사드 전문기업 ㈜써티데이즈 등 총 3개사이다.

올빼미하우스는 차기작으로 애니매이션 '수빈스토리 2'를 제작해 현재 방송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주)이모션은 최근 국가전략사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VR콘텐츠 전문기업으로, 지역 VR기술시장을 선도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진 기업으로 손꼽힌다.

또한 ㈜써티데이즈는 전주시 지원사업을 통해 풍남문과 전동성당 등에서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을 입증해왔다. 이 업체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최근 사업확장 및 타 지역으로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어 지역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기대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주지역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선도하는 이들 3개 기업이 참여하는 '2016 광주 ACE Fair'는 게임,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에듀테인먼트 등 라이선싱이 가능한 전 품목을 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콘텐츠 전시회로, 라이선싱수출상담회, 학술행사, 특별행사 및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 삼천도시대학협, '행복나눔… 협동조합' 개소

전주시 삼천동 주민들이 마을발전과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협동조합으로 똘똘 뭉쳤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온두레공동체인 '삼천도시대학협의회'의 회원 등 50여명은 이날 삼천동 채움교회에서 행복나눔 보물상자 협동조합 개소식을 갖고, 마을 주민들과 마을공동체가 앞장서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이날 협동조합 개소식에서는 협동조합 대표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협동조합 사업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또, 협동조합의 설립을 축하하고 번영을 기원하는 케익커팅 행사와 덕담이 오고 갔다.

행복나눔 보물상자 협동조합은 그간 삼천동 지역을 기반으로 '우리들 스스로 만드는 좋은 동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던 전주시 온두레공동체인 '삼천도시대학협의회' 회원들이 수익창출을 통해 자립적이고 더욱 활발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아 설립됐다.

/김영재 기자

전주서 아태지역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 열린다

11월 3일~5일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관련 주요 NGO(비정부기구) 대표들과 국내 무형유산 전문가와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무형유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전주에 몰려온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주관하고 무형문화연구소, 전주문화재단,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한국전통문화전당 등이 공동주최하는 '2016 아태지역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국립무형유산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무형유산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NGO 컨퍼런스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30여개 무형유산 비정부기구들이 참가해 국내 문화유산분야 단체들과 활발한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NGO 컨퍼런스에서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사회적 경제, 지역발전, 사회통합, 문화산업, 지속가능한 관광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개최된 유엔 제70차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핵심목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발전 목표로 설정됐고, 유네스코 역시 지난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무형유산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문화와 지속가능발전 간의 연계를 위한 국제 담론 형성을 주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재 기자